K,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K'는 자랑이 되었다. K팝에서 K드라마까지,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은 문화의 질을 보증하는 수표가 되었다. 프랑스 정치가이자 작가인 에두아르 에리오는 문화를 "모든 것을 잊어버린 뒤에 남는 것"이라고 했다. 문화는 한 철 유행가가 아니라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읽힌다. 문화는 한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노래하는지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K라는 글자를 단 채 무엇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을까. 한 계절 부르고 마는 유행가가 되지 않으려면 어디를 향해야 할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위기는 기후위기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이상기후와 탄소중립을 말한다. 'RE100'이라는 개념을 놓고 날을 세우던 후보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정치는 기후를 말하기 시작했다. 문화는 어떤가. 여름마다 폭염에 대한 기록이 새로 쓰이고 있다. 국지성 폭우가 도시를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커진 산불은 쉬 꺼지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달 찾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장바구니 물가에, 쪽방촌의 작은 방들에도 이미 성큼 들어와 있다.

문화는 시대의 거울이다. 화면 속 K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만 기후위기 앞에서는 조용하다. 기후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은 드물다. 물이 사라진 미래를 그린 '고요의 바다', 대기오염으로 잿빛이 된 도시를 그려낸 '택배기사' 정도가 언뜻 떠오른다. 그마저도 기후는 드라마의 배경으로만 쓰였다. 위기의 실체와 마주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깊지 않아, 기후위기의 시대는 잠시 머물다 간 흐릿한 달빛으로 여겨질 뿐이다. 화면은 암전되고 기후위기는 사라진다.

외면이 꼭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주제는 무겁고, 어둡고, 단박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치열한 기록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변화를 일으켰다.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의 분노와 함께 정책을 움직였다. '블루 플래닛 2'의 이야기다. 마지막 회에서 보여준 플라스틱에 뒤덮인 바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바다, 미래의 바다, 그리고 사라질지도 모를 인류로 사람들의 사고는 확장되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가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현상을 '블루 플래닛 효과'라고 부른다. 문화적 언어가 시대의 언어가 되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를 대중의 시선으로 해석했다. 그 메시지를 전한 앨 고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 철이 흐른 뒤에도 콘텐츠는 남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거듭하고 있다.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몇몇 국내 아티스트들은 국제 무대에서 기후 메시지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국내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도 기후위기는 이미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막연한 디스토피아적 재난 서사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의 구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행동과 말, 실험들은 아직 K기후서사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씨앗이 되기엔 충분하다.

지금이 기회다. 세계는 K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150억 달러에 육박했다. 화면 밖에서도 K의 위상은 높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1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2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뒤에 남는 것이 문화라면 K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들어 콘텐츠의 중심으로 옮겨 놓는 것은 어떨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병든 사회



기자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개인사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부쩍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9세 이하 자영업자 수(올해 8월 기준)가 1년 전보다 19.4%(2만7000명) 늘어났다. 나이 서른도 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총 16만6000명이라고 한다. 30대에서도 1년 새 5만 명(7.6%) 증가했고 올해 7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신규 자영업자 대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다. 취업이 어려운 탓에 자영업으로 눈 돌렸다는 비중이 21.7%에 달했다. 이 응답 비중은 1년 전(17.9%)에 비해 3.8%포인트(p) 뛰었다. 개인사업 개시에 앞서 일자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전년대비 3.0%p 오른 19.3%를 기록했다. '취업난 영향'과 '취업경험 무'를 창업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의 상당수는 20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무색하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다수가 칭송에 가까운 경제전망 보고서를 앞다퉈 펴냈다. 정부 자료를 보면 반도체의 기념비적 호황과 연간수출 1조 달러 시대 등이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는 모습이다. 기업, 특히 일부 주요 대기업이 이른바 '하드 캐리' 중인 경제다.

그렇다면 일자리 증가가 동반돼야 하는데 현실은 아니다. 반도체·수출 호황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다들 익히 알고 있다. 젊은 층의 취업 단념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올여름 9000 선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현재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지며 폭삭 내려앉아 있다. 외환위기·금융위기도 아닐뿐더러 중동 전쟁도 수그러들었다. 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라는데 주식은 도리어 곤두박질했다.

수능 등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술·엉망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누군가 AI 등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서울대에 다니고 행시를 통과해 국가 정책 결정에 간여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공공이든 민간 부문이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틈에 혹자가 사기 쳐 그 비좁은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시나리오를 20대의 다수가 지켜 봤다. 정부가 연말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앞날 구만리 세대에 일말의 희망·기대라도 주어지길 기원해 본다. 기성세대 책임이 막중하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 (음 10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일이 무난히 풀려 나갑니다. **60년생**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여행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떠나세요. **72년생**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사고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49년생 각별히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61년생** 양심과 반대되는 행동은 삼가 하도록 하세요. **73년생** 반드시 노력의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85년생** 실수가 우려되니 행동에 유의하세요.

50년생 때가 좋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62년생** 주위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74년생** 귀하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86년생** 칭찬 혹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년생 아랫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63년생**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75년생** 실패를 하기 쉽습니다. **87년생** 욕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일 처리를 하세요.

52년생 지금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64년생** 눈앞의 이득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세요. **76년생**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88년생** 귀인과의 만남의 찬스가 있습니다.

53년생 마음의 걱정을 친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65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습니다. **77년생**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89년생** 좀처럼 연인과 만날 틈이 없습니다.

54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66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78년생**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90년생** 재수는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합니다.

55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67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79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9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세요.

56년생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입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80년생** 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92년생** 여행하기에 아주 길한 시기입니다.

57년생 사방이 다 길한 방면입니다. **69년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길이 밝아 질것입니다. **81년생** 소유하는 것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93년생** 능력이상의 일에는 참견하지 마세요.

58년생 불행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70년생**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내도록 하세요. **82년생** 미래는 아주 밝고 희망이 넘칩니다. **94년생** 처음 시작은 좋으나 끝이 불안한 하루입니다.

59년생 불투명한 행동은 부와 명예의 길을 막게됩니다. **71년생**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3년생**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95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위법성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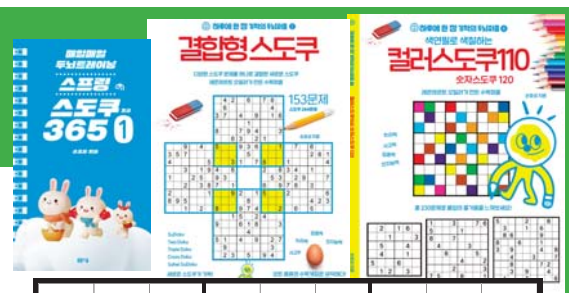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볼 때.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긴장하며 지켜보는데 정작 판결문에 나오는 말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분명 우리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낯설고 딱딱한 한자어 법률 용어가 너무 많다. 법을 다루는 문서는 명확하고 엄밀해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 그중에는 한 번쯤 들어봤지만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표현도 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조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조각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법에 어긋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법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조각은 법률 용어로, 어떤 성립 요건을 없애거나 부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밀치고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사람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안전을 지켰다면? 행동 자체만 보면 폭행이나 절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법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위법성 조각이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7	3					4
2			1		5		9	
		6	7		1	4	5	
	3	2	8		6	1		
	6		5		4			3
9					7	5		
		5					4	

				4			5	
1		6				2		
	2		3	7			4	
			6		3	7		
3		8				9		4
		1	4		2			
	3			2	5		1	
		4				5		2
	8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3	2	4	6	1	5	9
1	4	6	8	5	9	2	7	3
5	2	9	3	7	1	8	4	6
4	5	2	6	9	3	7	8	1
3	6	8	5	1	7	9	2	4
7	9	1	4	8	2	3	6	5
6	3	7	9	2	5	4	1	8
9	1	4	7	6	8	5	3	2
2	8	5	1	3	4	6	9	7

3	1	9	6	4	2	7	8	5
6	5	7	3	9	8	2	1	4
2	8	4	1	7	5	3	9	6
8	9	6	7	3	1	4	5	2
5	7	1	4	2	9	6	3	8
4	3	2	8	5	6	1	7	9
7	6	8	5	1	4	9	2	3
9	4	3	2	8	7	5	6	1
1	2	5	9	6	3	8	4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